

2019 제9기 달빛문화과정 강의교재



TALK



NAVER



경제로 보는 2차 세계대전

군사 전문기자 | 이 세 환





경제로 보는 2차 세계대전



군사 전문기자 이 세 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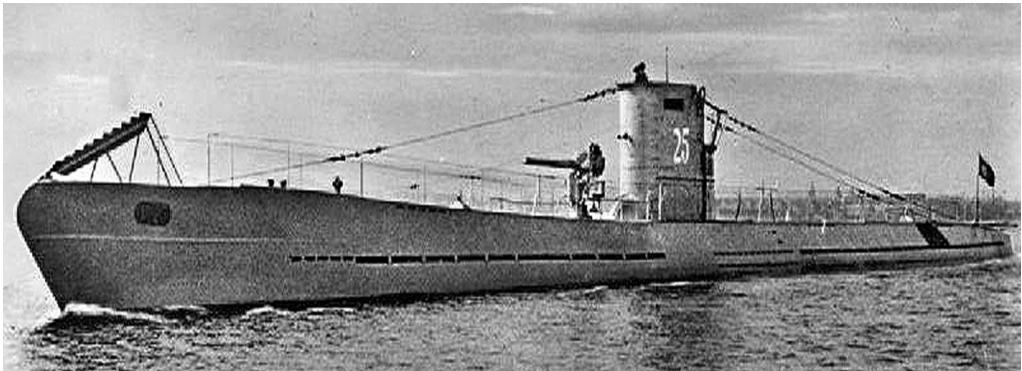
강의 개요

- 그동안 2차 세계대전을 정치·군사적 측면에서 주로 조명
- 하지만 전쟁은 곧 경영
- 전쟁에서의 전투는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필요 → 그에 못지않게 이들을 먹이고 입히며 유지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필요 → 역사상 보급에 실패한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한 예가 없기 때문
- 또한 국가의 기술수준과 산업수준이 바로 전쟁의 결과로 이어지는 20세기 전쟁 → 이제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는 가혹한 것
- 가장 극적인 20세기의 전쟁인 2차 대전 발발 후, 전쟁이 지속됨에 따라 각 국가들의 산업은 어떻게 전쟁에 적용?
- 그리고 그 변화들이 종국에는 전쟁의 승패와 어떤 함수관계?

1. U-보트와 2차 세계대전(통상로 파괴 작전)

1) 개전당시의 독일 해군의 잠수함

- 개전 작전 시점에서 독일이 보유한 U-보트는 56척 → 그중에서 작전 가능한 상태의 U-보트는 46척 뿐
- 1939년 9월 시점의 주요 국가의 잠수함 보유 척수
프랑스 77척, 이탈리아 107척, 네덜란드 24척, 영국 69척, 소련 150척,
미국 100척 →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에도 뒤지는 잠수함으로 전쟁에 돌입



2) 소외된 독일해군

- 독일은 재군비를 선언한 1935년 아래 해군력을 증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군과 육군의 육성순위에 밀려 해군은 언제나 뒷전 → 이런 현상은 전쟁기간 내내 지속
- 독일 공군 총사령관 괴링을 두고 해군 총사령관인 래더 원수가 사임하면서 히틀러에게 남긴 말 ‘해군과 저의 후임자를 괴링으로부터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’



3) U보트의 재건

에리히 래더

- 1차 대전의 패전국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잠수함 보유 금지
-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었던 모든 잠수함은 폐기 → 보유하고 있던 170여척의 잠수함은 승전국인 프랑스, 영국, 미국, 이탈리아, 일본이 나눠가짐
- 그러나 설계도를 넘기라는 강제조항이 누락 → 이는 독일 잠수함 재건의 단초
- 하지만 독일은 1922년부터 베르사유 조약을 피해가기 위해 네덜란드에 비밀연구소를 세우고 잠수함 건조 준비를 함
- 또한 핀란드에도 비밀연구소를 세우고 은밀히 핀란드와 잠수함 건조계약을 체결 → 이윽고 1930년에 핀란드에서 잠수함 건조에 성공
- 또한 독일은 1932년에 ‘소형 유람선 개발 연구소’라는 위장된 단체를 설립하고

1938년까지 16척의 잠수함을 건조할 비밀계약을 체결

- 독일이 1920년대부터 비밀리에 추진해 왔던 잠수함 건조에 대한 연구 및 개발 덕분에 기술적인 면에서 만큼은 U보트의 성능이 당시로서는 가장 우수

4) 새로운 전술-울프팩과 통상로 파괴 작전

-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는 영국을 독일이 수상함 세력으로 상대한다는 것은 자살 행위
- 따라서 독일은 잠수함을 이용한 비대칭 전략을 수립 → 울프팩
- 이 잠수함으로 적 전함들을 노리기보다 미국에서 영국으로 들어오는 수송선단을 공격해 영국을 고사시키는 작전
- 1940년 6월에 프랑스가 독일의 수중에 들어감 → 모든 중장비를 프랑스에 내버린 채 몸만 간신히 빠져나온 영국은 그야말로 빈 텔털이
- 당시 영국은 홀로 외로이 사력을 대해 싸우고 있었음 → 영국은 전쟁수행을 위해 매 달 400만 톤의 물자를 수입해야만
- 영국의 상선과 화물선들은 유일한 생명줄인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꾸준히 물자들을 들여와야만 → 바로 이것을 노린 독일



1939~1941 연합군 선단 격침 현황



5) 영국의 시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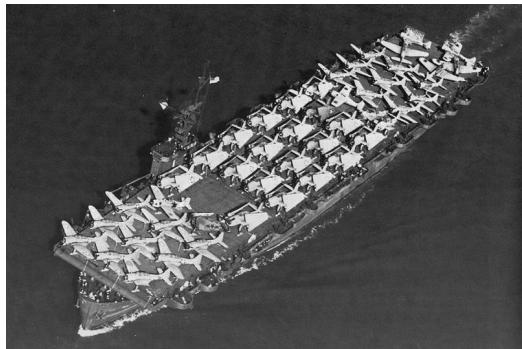
- 이른바 독일 U-보트의 울프팩 전술로 개전 후 영국은 20개월 만에 900척의 함선 손실
- 영국은 미국이 참전하면 숨통이 트인다고 생각 → 이를 위해서 영국은 일본이 먼저가 아니라 독일이 먼저라고 미국을 설득
- 미국은 영국의 의견을 받아들임
- 미국이 50척의 구축함을 영국에 지원 → 공짜는 없음

6) 영국의 결단

- 그러나 1943년 초 → 독일 U보트의 공격에 의해 무려 3천척이 넘는 수송선이 격침되는 대 참사
- 미국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 → 진정한 최악의 시기
- 영국이 가진 첨단기술력 모두를 미국에 넘겨 미국의 생산력과 기술력을 배가시키기로 → 당시 첨단기술의 정점엔 영국과 독일
- 수많은 첨단과학기술이 미국의 엄청난 생산력과 맞물려 빛나기 시작
- 때를 맞춰 미국의 산업체제는 완전히 전시체제로 개편 완료
- 1943년 중반 → 한 달에 약 40척의 U보트가 격침되는 사태
- 이제 대서양에서 주도권은 연합국으로
- 해가 바뀐 1944년부터 연합군은 전 전선에서 공세로 전환 → 유럽 본토를 되찾기 위해 사상 최대의 상륙작전을 벌이는 단계까지



카탈리나 수상 정찰기



카사블랑카급 호위 항공모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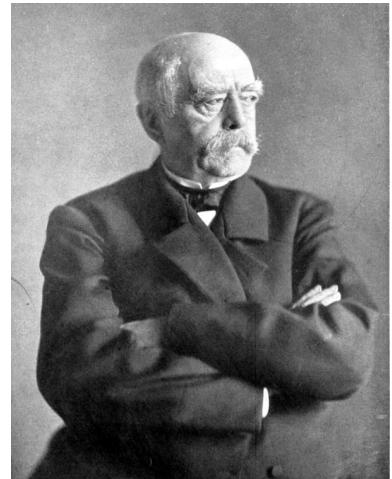


영국 전함에 설치된 레이더

2. 전쟁수행능력의 차이

1) 독일의 전쟁결심

- 2차 대전에서 약의 축이었던 독일과 일본의 전쟁수행능력은 근본적으로 차이
- 독일 → 시간을 19세기 중반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
-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曰 ‘이제 막 통일한 독일이 식민지를 빌미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자살행위다. 식민지에 미련을 버리고 과학기술에 옮긴다. 식민지 대신에 화학이다!’
- 이런 정책에 따라 독일은 가열 찬 과학 및 공업 입국의 길로 → 19세기 후반쯤 되면 산업혁명의 원조였던 영국을 공업생산력에서 앞서게 됨.
- 독일은 20세기 초입에서 제 1차 세계대전을 일으킴 → 절대적인 자원부족 등이 겹쳐 전쟁에서 패배
- 패전 후 독일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자원이었던 석유의 부족이 무척 치명적 → 독일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과학으로 해결



비스마르크



2) 일본의 전쟁 결심

- 일본은 독일과는 사정이 많이 달라 →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산업화에 성공
- 일본은 가쓰라-테프트 밀약을 통해 조선을 차지 →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 → 그리고 이때부터 미국은 일본의 든든한 스폰서
- 놀랍게도 태평양전쟁 당시까지 일본의 주력 산업은 실크와 면직물 가공
- 더불어 재봉틀 같은 1차 기계류를 식민지시장에 팔아먹는 것
- 1937년에 일제의 야욕이 중일전쟁으로 표출 → 미국은 고강도의 경제제재로 일본을 압박 → 오늘날의 북한이 당시의 일본
- 일본의 상황판단은 다음과 같음

‘현재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국가존립에 필수적인 석유와 고무, 목재 등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은 남방자원지대, 즉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지역이 유일하다. 그런데 그 남방자원지대로 가는 길목에 미국의 식민지인 필리핀이 있다. 필리핀을 점령하지 않고서는 자원획득이 불가하다. 다행히 필리핀은 미 본토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있는 곳이다. 따라서 태평양 진주만의 미 해군을 기습공격으로 박살낸 후, 재빨리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남방자원지대를 확보한다. 미국이 태평양 함대를 재건하려면 적어도 2년이 걸릴 것이다. 그 사이에 우리 일본은 절대방어권을 설정하여 단단히 방어태세를 갖춘다. 그리고 이어지는 결정적 해전에서 승리한다면, 미국과 협상할 수 있을 것이다.’
- 초전에는 일본의 이러한 생각이 모두 들어맞음 → 결정적 오판의 원인
- 일본의 자신의 능력을 과신 → 태평양전쟁 발발 6개월 만에 미드웨이에서 카운터펀치 → 미드웨이의 패전보다 더욱 심각한 사태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
- 기술 및 산업의 수준에서 전혀 상대가 되지 못함



일본이 설정한 절대 국방권

3) 독일과 일본의 전쟁수행능력 차

- 두 주축국의 전쟁수행능력의 차이는 연합군 항공 전력에 대응한 수치에서 잘 나타남

국가 \ 항목	대공포 생산량	미군의 항공기 총 손실대수	미국의 국가역량 투입비율(%)
독일	20,000	38,418	80
일본	850	14,533	20
독일 : 일본	23.5:1	2.64:1	4:1



3. 경제로 본 추축국 패전의 결과와 국가산업지수

〈년도 별 주요 참전국 GDP 비교〉

국가 \ 년도	1938	1939	1940	1941	1942	1943	1944	1945
일본	1	1	1	1	1	1	1	1
영국	2.9	2.8	2.8	2.9	2.9	3.0	3.0	3.5
독일	1.5	1.9	3.2	4.4	4.4	3.3	2.7	1.5
미국	3.6	3.6	3.8	4.3	4.8	5.5	6.0	7.2

(이해하기 쉽게 일본을 1로 기준)

1) 독일의 패전 원인

- 독일의 경우 흔히 1943년 전 까지 독일은 전시 경제 체제가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음
- 이 속설의 진원지는 크게 두 군데 → 첫 번째는 나치 독일의 선전부장관 괴벨스가 1943년 2월 18일 베를린 '슈포르트 팔라스트'에서 행한 연설 → 이른바 총력전 연설
- 두 번째 진원지는 독일의 저명한 경제통계 전문가인 '롤프 바겐푀어'의 1950년대 저작 '전시 독일 산업, 1939-45' → 그는 이 책에서 1939-41년 시기 경제적 측면에서의 전시 체제 돌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, 사실상 평화기와 다름없었다고 기술
- 하지만 그 후 속속 들어나는 진실에 그의 저서는 오류로 판명 → 사실 1939년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독일은 전시 경제체제
- 나치 정권은 이미 1933년 집권 이후 총력전을 염두에 두고 엄청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었음 → 1939년에 이르면 이미 국민 총생산의 1/4 가량과 국가노동력의 1/4 가량이 군수분야에 집중
- 독일은 차근차근 전비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'규모의 경제'부터 구축하자는 전략 → 문제는 1939년 개전 당시에 기반투자가 마무리는커녕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
- 그러나 전쟁은 예상을 앞질러 시작 → 지상전이 확대되는 와중에도 거대 기반설비를 완공하는데 상당한 자본과 노동력이 지속적으로 투입 → 이 때문에 정작 필요한 완성품, 즉 무기 생산은 늘릴 여력은 부족
- 이것은 독일의 전쟁이 주도면밀하게 세계대전으로 확대된 것이 아니라, 매우

우발적인 도발을 하다 보니 감당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번졌다라는 사실과도 일맥상통

- 놀랍게도 영국 정보부와 내무성은 독일의 산업수준이 1944년 이 후 완전히 안정화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1938년에 이미 판단 → 이 판단을 근거로 영국은 어떻게든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여 1944년 이전에 승기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



괴벨스

- 영국의 생각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 → 미국의 가공할 생산력이 1943년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

4. 결론

- 결국 패배하긴 했지만, 수상함 전력이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독일 해군이 거두어낸 통상로 파괴작전의 의미는 여전히 현대전에서도 유효
- 2차 대전 이후 비대칭 전력의 상징이었던 잠수함은 주요 강대국의 최종병기로
- 주변에 슈퍼파워 네이션이 즐비한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큼 → 우리의 한정된 능력 안에서 선택과 집중을 신중히 고려해야만
- 오히려 영국을 살펴 볼 필요 → 전쟁에서 위기의 순간에 영국이 내린 결단이나 분석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, 무엇보다도 미국이란 좋은 친구가 있었다는 점
-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약한 자에게 좋은 친구는 있을 수 없는 법 → 약자는 병탄 당하기 마련
- 영국이 좋은 친구들을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 스스로가 강했기 때문
- 일본은 자신들의 전쟁수행능력을 완전 오판 → 전략 수립에서부터 자신의 산업역량 평가, 현대전의 이해, 상대에 대한 분석 등 모든 분야에서 실패
- 전혀 현실감각이 없이 전쟁수행